

“작은 한 걸음 모여 사랑을 나눠요” 삼성전자 ‘사랑의 걷기’ 캠페인



1, 2 삼성전자 DS부문, '제46회 사랑의 걷기' 캠페인 3 '플로깅 챌린지' 행사

삼성전자 DS부문은 지난 10월 12~22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각종 어려움을 지역 사회와 함께 극복하고자 '제46회 사랑의 걷기' 캠페인을 벌였다.

사랑의 걷기 캠페인은 행사 기간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모바일 앱에 누적된 걸음 수를 합산해 한 걸음당 1원씩을 삼성전자가 지역사회에 후원하는 행사다.

올해는 10억 걸음, 10억 원 후원을 목표로 잡았다.

삼성전자 DS부문은 1998년 국제금융위기 당시 '사랑의 달리기'로 처음 행사를 시작한 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랑의 걷기'로 변경해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행사에서 4만1천569명 임직원이 2억9천만 원의 성금을 모아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후원했다.

아울러 지역 생활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활동도 실천하고자 '플로깅 챌린지'도 함께 펼쳤다.

플로깅은 스웨덴어 '이삭을 줍다'(plocka upp)와 영어 단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을 뜻한다.

이 밖에 행사에 참여하는 임직원에게 학교 급식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농가에서 구매한 쌀로 만든 사회적 기업의 쌀과자를 기념품으로 제공했다.

최수일 삼성전자 SE(스태프 엔지니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을 위해 걷고, 환경 정화까지 실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개인적 성취감을 넘어 지역사회를 위한 기여도 할 수 있어 자부심을 느끼며, 참가자들의 선한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닿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후원금은 결식아동 후원, 복지시설 환경 개선,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등에 쓰였다. ▼

SAMSUNG



870 QVO

더 커진 용량, 더 넓어진 활용도

870 QVO는 삼성의 최신 2세대 QLC SSD이며, 최대 8 TB의 저장 용량을 제공하는 최초의 제품입니다. 870 QVO는 데스크톱 PC 또는 노트북을 성능 저하 없이 시중 최대 저장 용량으로 확장하려는 일반 PC 사용자를 위한 놀라운 업그레이드를 제공합니다.

* Source : 2003 - 2019 IHS Markit data : NAND suppliers' revenue market share

